

[기획] >> 4면
마이크로디그리의 발전 방향

[기획] >> 5면
외부인과 학생식당

[사회문화] >> 8면
무인점포의 운영 문제

[학술] >> 9면
인도-파키스탄 충돌

마이크로디그리, 더 나은 교육 과정을 위해선

우리학교는 지난 2023년부터 전문지식과 융합학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마이크로디그리는 아직 안정적인 정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현황과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문제점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우리학교, '2025 글로벌 동문 멘토링데이' 성료



▲출처: 전략홍보팀

지난달 1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Minerva Complex Obama Hall)에서 '2025 HUFs 글로벌 동문 멘토링데이(Mentoring Day)'가 개최됐다. 본 행사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주관으로 매년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진로 및 취업 멘토링 행사다. 행사엔 총 60명의 현직 동문 멘토가 참여해 약 2800명의 △졸업생△지역 청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정보△직무 상담△진

로 설계 등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관심 있는 분야와 직무의 멘토링 부스(Booth)를 방문해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배 동문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취업과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Mentor)로 참여한 우리학교 동문 A씨는 "과거 멘토링데이엔 멘티(Mentee)로 참석해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다"며 "취업 후 꼭 다시 학교로 돌아와 후배들을 돕고 싶었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지연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장은 "뜻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는 현직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멘티가 다시 멘토가 되는 선순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우리학교, '2025 HUFs 특강' 개최



▲출처: 전략홍보팀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힐라이쿠슈네트홀(Hilacushnet Hall)에서 윤덕민 우리학교 석좌교수(이하 윤 교수)를 초청해 '2025 HUFs 특강'을 개최했다. 이는 △국제통상△인문 △학외교 등 우리학교의 강점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회 이슈를 융합해 △지역 청년△졸업생 △재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윤 교수는 '외대인은 급변하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미국 트럼프 정권의 마가 정책(Make America Great Again)△중국의 일대일로 등을 예시로 세계 질서의 변화 양상을 조망하며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강연 후반엔 "아무리 정세

가 혼란하더라도 외대인이 세계를 향하고자 하는 꿈을 꺾을 수는 없다"고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학교 재학생 김나현(서양어·독일어 24)씨는 "강연뿐 아니라 학우들과의 소통 시간까지 더해져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지연 우리학교 설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이번 특강이 외교 분야 및 국제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덕술 회장의 후원을 바탕으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진로 설계와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Chilsung CIDER
칠성사이다
NEW 칠성사이다

제조·판매: 칠성음료(주) | 소비자안전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호음료입니다

14년 만에 부활한 주점... 2025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를 물들이다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2025 퀸쿠아트리아가 개최됐다. 퀸쿠아트리아는 우리학교의 대동제로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주관 아래 다양한 무대와 체험형 콘텐츠(Contents)로 구성됐다. 이번 대동제는 △무대 콘텐츠△부스 콘텐츠△푸드트럭 행사 △양일간 운영됐으며 그밖에도 △그래피티(Graffiti)△보물찾기△스탬프 투어(Stamp Tour)△아케이드(Arcade)△포토 부스(Photo Booth)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설캠 전역에서 펼쳐졌다.

대동제 첫날인 19일엔 학우 공연과 외대교육방송국(이하 FBS) 가요제로 무대가 꾸며졌다. '2025 QUINQUATRIA FBS 가요제: 물들다'는 FBS와 총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리학교 대표 가요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사연을 신청받아 참가자들이 이를 노래로 전하는 감성적인 무대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아티스트(Artist) 공연은 △비투비(BTOB)△신미야B가 무대를 채우며 열기를 더했다. 이 열기는 둘째 날에도 이어졌다. 학우 공연으로 시작한 무대 콘텐츠는 '2025 QUINQUATRIA 응원제: 새기다'로 이어졌고 △백예린△윤하△트랜스픽션(TransFixion)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축제를 관람한 우리학교 학생 A 씨는 "다양한 장르로 꾸며진 무대가 인상적이었다"며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을 즐겼다"고 말했다.

부스(Booth) 역시 올해 대동제의 또 다른 주요 콘텐츠였다. △아랍어과의 두바이(Dubai) 초콜릿 와플△일본학대학의 야끼소바와 오노노미



야끼△중국학대학의 양꼬치 등 전공 언어 국가의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부스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중국학대학 부스를 운영한 우리학교 재학생 김인호(중국·중외통 24) 씨는 "동기들과 함께 부스를 준비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는 추억을 쌓았다"며 "단순한 먹거리 판매를 넘어 학교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변화는 14년 만에 부활한 공식 주류반입

구역(이하 주점)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학내 주류 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재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철저한 안전대책의 마련에 따라 이번 해 대동제에서 주점이 재개됐다. 설캠 총학은 "보다 다채로운 대동제를 만들기 위해 주점을 진행하는 타 학교 사례 참고와 철저한 안전 대책 지침 수립 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대동할 수 있는 주점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학생들이 강의실 안에서 리스너(Listener)로만 머물렀던 역할을 탈피하여 스피커(Speaker)로 거듭나 주점이 구성원 간의 대화의 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점에 참가한 우리학교 재학생 김예인(아시아·베트남 23) 씨는 "첫 공식 주점이라 기대가 컸다"며 "주점 덕분에 동기들과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대동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 퀸쿠아트리아는 '유포리아(Euphoria)'란 테마에 걸맞게 학생들이 일상과 학업에서 벗어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동제였다.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시도가 어우러진 이번 대동제는 우리학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물들여가는 순간이었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우리학교,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주관기관 선정

우리학교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새싹 사업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SW(Software)/AI(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특히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학교는 이번 사업을 위해 경희대학교 및 (주)자란다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고 'SW/AI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출범했다. 사업단은 경기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 단위 교육을 수행하며 이번 해 총 6,500명의 학생에게 SW/AI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 인재상은 디지털 시대의 AI융합 창의적 인재이며 해당 사업에선 △능동적 협력△디지털 소양△문제 해결 능력 등 세 가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단계별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디지털 창작자△디지털 탐험가△디지털 혁신가 등 학생 역량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별 성장 단계에 적합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인 △디지털 히어로즈(Heroes)△AI 창업 어드벤처(Adventure)△AI 탐정단 등이 있다. 또한 다문화와 도서 벽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특화과정으로 △미래 로봇 손 프로젝트△시구를 구하는 요리사△파이썬(Python) 게임 메이커스(Makers) 등이 마련돼 있다.

두일철 우리학교 AI교육단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SW/AI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기관△지역사회△학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2023년부터 디지털새싹 캠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대학진로탐색캠프 및 SW중심대학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우리학교 디지털새싹 사업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현과 △기업△대학△학교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우리학교, 2025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운영기관 선정



우리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Consulting)'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현장의 디지털(Digital)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우리학교는 △강원△경기△서울△인천△제주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우리학교△에듀테크(Edu-tech) 기업 ㈜글로랑△제주대학교(이하 제주대)가 함께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해 운영된다. 우

리학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Network)와 인공지능 기반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기획을 주도하고 ㈜글로랑은 인공지능 기반 진단 시스템(System)과 플랫폼(Platform) 기술을 통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콘텐츠(Contents)를 지원한다. 제주대는 지역 기반 교원 양성 경험을 살려 컨설팅을 수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교사 디지털 리더십(Leadership) 강화△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학생 맞춤형 디지털 문해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두일철 우리학교 AI교육단 교수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전환기에 학교와 교사가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디지털 교육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번역의 목소리들: 차학경부터 한강까지' 번역 학술대회 개최

지난달 23일 우리학교 영미연구소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학술대회 '번역의 목소리들: 차학경부터 한강까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문학번역의 △문화적△산업적△창작적 의미를 조명하며 한국문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번역이 수행한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문학번역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로 문학과 번역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했다.

첫 시작은 문학번역과 이국성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윤후남 번역학자(이하 윤 학자)가 맡았다. 윤 학자는 차학경의 '딕테(Dictee)'를 중심으로 문학 번역과 디아스포라(Diaspora)의 자기 정체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영국 그란타 출판사(Granta Publications) 커머셜 디렉터(Commercial Director) 노엘 머피(Noel Murphy)가 영어권에서의 한강 소설 번역과 출판 현황을 소개하고 노벨상 수상 이후 작품 판매와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이후엔 실제 번역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해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

를 영어로 옮겨 인터내셔널 부커상(International Booker Prize) 최종 후보에 오른 배영재 번역가는 번역 과정에서의 고민과 선택들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편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와 클레어 키건(Claire Keegan) 등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말로 옮겨온 흥남별 번역가는 번역의 가능성을 주제로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윤선경 우리학교 영미연구소장은 "번역은 우리 사회에서 창작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열등한 글쓰기로 인식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번역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전공기초를 위한 기초과목, 모두에게 열린 제도가 되려면

2025학년도 1학기에 우리학교 교과과정에 변화가 찾아왔다. 무전공 및 계열 모집 입학생들의 전공 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기초과목'이 신설된 것이다. 2025학번 이후 입학생들은 소속 학과가 지정한 기초 영역에서 최소 6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존 교과목이 기초과목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기초과목 전공 학

점 인정 여부는 학과별로 상이한 상태이며 기존 전공필수 교과목의 대체 교과목임에도 25학번 이전 학번 재학생의 수강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혼란도 적지 않다. △우리학교 기초과목의 현황△우리학교 기초과목 운영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학교 기초과목의 현황

2025학년도 1학기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기초과목'이 신설됐다. 기초과목이란 각 단과대학 및 개별학과에서 개설한 것으로 향후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기초과목엔 △상경영역△외국어영역△이공영역△인문사회영역의 기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대분류 영역 기초와 전공 언어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 개설된 학과별 전공언어 기초과목 등이 있다. 이러한 기초과목이 올해부터 도입된 이유는 25학번 무전공 및 계열 모집 입학생들이 향후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5학번 이후 입학생은 자신이 소속된 1 전공 학과에서 인정하는 기초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계열 모집 입학생의 경우엔 소속된 계열 내에서 자유롭게 기초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개설된 기초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총 6 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일부 학과에선 올해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기존 전공 교과목을 기초과목으로 대체했다. 경상대학 소속 GBT 학부의 경우 기존의 전공필수 과목인 '경영학원론'이 경상대학 기초과목으로 편성됐으며 기존 재학생은 해당 기초과목 수강을 통해 기존의 경영학원론을 재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우리학교 기초과목 운영의 문제점

그러나 올해부터 새롭게 개설된 기초과목은 수강신청부터 문제점을 보였다. 지난 2월 3-7일 정규수강신청 기간에 25학번 이전 기존 재학생들의 기초과목 수강 신청이 제한되면서 기존 재학생들은 시간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았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5학번 이전 재학생들은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기초과목의 수강 신청이 불가능했고 수강신청 변경 기간인 지난 3월 4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재학생 A씨는 "기초과목이지만 전공 필수를 대체하는 과목이라 반드시 수강해야 했다"며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없어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시간표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기존의 일부 전공 교과목이 폐강되고 올해부터 기초과목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신설된 기초과목의 수강 제한은 캠퍼스 간 이중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했다. 우리학교는 정규 학기에 이중(부)전공 학과의 강의만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캠퍼스 간 이중(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초과목이 이중(부)전공 소속 학과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차 수강신청이 불가능했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중지)는 정규 수강신청 기간이 끝나고 3주 뒤인 지난 2월 28일 이와 관련한 공지를 했다. "기초과목 개설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2025학년도 1학기

엔 기초과목의 캠퍼스간 교차수강 전산 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했다"며 "특정 캠퍼스 학생이 타 캠퍼스 이중(부)전공 학과의 필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신청을 받아 수작업으로 수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초과목 교차수강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각 학과의 승인 절차가 개강 이후에야 진행되는 등 재학생들의 시간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수강변경 기간을 하루 남긴 지난 3월 7일에 교차수강 신청 결과가 통보된 학과도 있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기초과목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25학번 이전 재학생에게도 필요한 교과목이다. 특히 해당 과목이 기존의 전공필수 과목을 대체하는 경우 정규 수강신청에서 재학생이 배제되는 운영 방식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모순된다. 우리학교는 학번을 기준으로 수강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해당 과목의 학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학생이 불이익 없는 수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학중지 측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기초과목 수강신청이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과목 수강의 학번 제한에 대해선 "25학번부터 기초과목 수강이 의무인 만큼 여석을 조정할 것"이라며 "학과의 요청에 따라 수강 가능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캠퍼스 간 이중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의 기초과목 교차수강 가능 여부에 대해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2025학년도 2학기 적용을 목표

로 교차수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기초과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제도 시행 전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 학중지는 "본래 이번 학기부터 기초과목을 도입하게 되면서 2025학년도 1학기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공개하고자 했으나 일부 교과목에서 수강신청 직전에 변동이 발생해 해당 과목에 대한 수정 조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야 공개할 수 있었다"며 "당시는 학과 단위에서 기초과목을 포함한 4년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신설하는 과도기였던 만큼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과정 변경이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사항은 정규 수강신청 이전에 명확히 공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캠퍼스 간 이중전공 학생들의 교차수강 신청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공지한 만큼 학과별 일정을 통일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는 재학생들의 수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초과목 수강제도 운영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부 25학번 이전 재학생들에게 기초과목 수강은 졸업 및 진로설계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교과과정 개편 과정에서 재학생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수강신청이 가능하길 기대한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후속보도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 시도 속 남은 과제

지난 1079호에선 우리학교 도서관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후 도서관 측은 열람실 사석화 해소 및 휴게공간 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해 왔

다. 그러나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 공간 개선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도서관 공간 개선 현황

지난 1079호 보도 이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측은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선 열람실 좌석 사석화 문제 해소를 위해 △민원 응대△순찰 인력 보강△현장 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좌석 무단 점유를 줄이기 위한 모바일(Mobile) 좌석 배정 시스템(System)의 '90분 복귀 제한' 규정도 그대로 유지 중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던 반응이 많다. 우리학교 재학생 전운아(아시안·터키어 22) 씨는 "앱으로 좌석을 예약해도 현장에 가보면 짐만 있고 사람은 없다"며 "결국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해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유지됐던 열람실 내 거리두기 기반의 좌석 배정 방식은 현재 완료된 상태다. 과거엔 개방형 열람실에 한 칸씩 띄워 배치하는 방식이 적용됐지만 팬데믹(Pandemic) 사태가 점차 완화되며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해진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됐다. 현재는 시험 기간을 중심으로 자료실 좌석 전면 배치와 거리두기 해제 등 실질적 수요에 맞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도서관 관계자는 "방역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공간 활용

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휴게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 2층 휴플레이스(休-Place)는 기존 탁자를 제거하고 소파를 교체하는 등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해 실질적인 휴식 공간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각 열람실 입구 쪽엔 △노트북 가방△독서대△뚜껑은 책 등 부피가 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해 좌석 점유와 무관하게 짐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보관함 운영의 편리함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최은아(아시아·인도아세안계열 25) 씨는 "앱으로 좌석을 반납한 뒤에도 짐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유용했다"고 보관함 운영의 편리함을 전했다. 학생 자치단체 역시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 설캠 총학생회는 도서관 측과 정기 면담을 실행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에선 시험 기간 도서관 환경에 대한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해 도서관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공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학교 구성원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도서관 공간 이용에 있어 불편을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앱에서 '사용 중'으로 표시된 자리에 사람이 없고 짐만 놓여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도서관 이용수칙엔 여전히 사석화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어 단속이나 제재가 모호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규정상 '물품 장시간 방치 금지' 같은 포괄적 표현만 존재할 뿐 어떤 경우가 사석화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단속 여부가 개인의 인식과 도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혼란과 충돌의 소지가 남아 있다. 도서관 측에서도 합부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율 운영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엔 한계가 따른다.

한편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휴게공간 확충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휴플레이스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많은 학생이 복도 바닥이나 계단 옆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연세대학교나 서울시립대학교 등의 타 대학들은 열람실 내 수면용 소파

나 조용한 휴식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학교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 공간 재배치와 휴식 기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결국 도서관이 효율적인 학습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바일 좌석 시스템 운영 개선△사석화 기준과 제재 규정의 명확화△휴게공간 확대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과 학생 간의 소통 강화다. 규정 정비와 제도 개선은 학내 구성원들의 공론화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더 이상 '눈치 싸움'으로 좌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단 안정적인 학습환경 속에서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이 다시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투명한 운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마이크로디그리, 더 나은 교육 과정을 위해선

우리학교는 지난 2023년부터 전문 지식과 융합 학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제도를 도입했다. 매 학기 1월 및 7월마다 마이크로디그리 수강 신청이 열리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의 인식 부족△양 캠퍼스(이하 양캠프) 공통 과목

부족△캠퍼스별 계열 풀림 현상△수요 기반 개설 과목 부족 문제들로 인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현황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현황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위 과정과는 별도로 △미네르바 교양 대학△부서 및 학제△전공·학과·학부 간 지정된 최소 학점을 이수하는 모듈(Module)형 교육 과정이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이중 전공 및 부전공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비학위 과정이며 졸업 요건과는 무관하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최대 3개까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으며 각 마이크로디그리에서 제시하는 교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할 시 이수 완료가 가능하다. 우리학교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엔 △교육 수요자 맞춤형 마이크로디그리 △사회수요 맞춤형 마이크로디그리△외국어계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이 개설돼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실제로 이수하고 있는 학생 수는 졸업 필수 과정 신청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제도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올해 1학기 기준 175명이다. 학종지는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모듈형 교육 과정인 만큼 이중 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졸업 필수 과정 신청자 수보단 적은 편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3~28일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 과정을 실제로 이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19%에 그쳤다. 이처럼 다수의 학생이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론 ‘졸업하기 전 마이크로디그리 이수까지 마치고엔 부담스러워서’가 50%로 응답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후론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마이크로디그리의 이수가 실질적인 이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캠퍼스 내 개설 과목이 한정적이어서’ 및 ‘마이크로디그리 내 이수 교과목이 한정적이어서’△‘이수를 원하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문제점

핵심적인 문제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인식 부족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디그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76.2%가 ‘예’라고 답했다. 반면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신청 가능 개수△신청 가능한 과목△신청 가능 시기△신청 자격△의미에 관해 구체적

으로 묻는 질문엔 ‘매우 잘 알고 있다’ 23.8%△‘조금 알고 있다’ 19%△‘보통이다’ 23.8%△‘잘 알지 못하고 있다’ 14.3%△‘매우 잘 알지 못하고 있다’ 19%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디그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3개 이하로 알고 있던 응답자의 비율이 50%를 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정지윤(서양어·스페인 24) 씨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외대학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됐다”며 “많은 학생이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않기에 학생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캠프에서 공통으로 열리는 마이크로디그리 과목의 개수가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학교는 올해 1학기 기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에선 14개의 마이크로디그리 과목이 개설돼 있고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엔 17개의 과목이 개설돼 있다. 하지만 양캠프에서 공통으로 열리는 과목은 ‘국제무역경영’ 및 ‘유럽고전 미술사’로 단 2개뿐이다. 특히 캠퍼스별로 개설된 과정이 상이해 본인이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어△일본어△중국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전문가 과정은 글캠프에만 개설돼 있어 설캠프 학생들이 마이크로디그리로 선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현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이수 중인 우리학교 재학생 김도현(아시아·마인어 24) 씨는 “언어 전문가 양성 트랙이 글캠프에만 있어서 신청을 포기했다”며 “설캠프도 다양한 언어 과정이 개설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다. 설캠프에도 △스페인어 과△일본학대학△중국학대학이 존재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이 글캠프에서만 수강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종지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은 글캠프 소속 학과인 △스페인어통번역학과△일본어통번역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에서 개설한 마이크로디그리 기 때문에 이수에 필요한 교과목이 글캠프 교과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캠퍼스별 계열의 풀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설캠프엔 △외국어△외교△브랜딩(Branding)△심리학 등 외국어 관련 과목이 다수 개설된 반면 글캠프엔 △자연어 처리△통계△금융 및 경영 등 공학과 실용 과목 중심의 과목으로 종류가 쏟아져 있는 편이다. 마이크로디그리의 경우 이중 및 부전공 등을 선택하기 전 전공 탐색을 위해 선택하기 위한 목적인데 하나의 캠퍼스에 특정 계열의 과목들이 쏟아져 있다 보니 전공 진입 전 실제 경험을 위해 수강하는 실효성은 부족한 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캠퍼스 내 개설 과목이 한정적이어서’

를 마이크로디그리를 아직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꼽은 비율은 응답자의 16.7%를 차지했다.

수요 기반 전공 개설이 부족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종지에 따르면 현재 마이크로디그리를 개설한 학과 및 학부에서 신청한 과목이 개설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수요 기반이 아닌 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우리학교 설캠프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은 “학생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경 계열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은 명확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상경 계열과 관련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경우 ‘금융기관 및 무역 경영’과 ‘국제무역경영’ 2개의 과목에 불과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참여율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유인책을 동반한 홍보가 필요하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마이크로전공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과 연계 및 다중 전공 연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AI & Data Science 과목을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컴퓨터공학과 복수·부전공 선발 시 2%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역시 컴퓨터공학과 전과 시 본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 B 학점 이상을 받을 때 가산점을 부여해 마이크로전공 선택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유인책에 관해 학종지는 “이점을 주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감점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종지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기반으로 학습자실계융합전공을 구성해 이중 전공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며 현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원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덧붙였다.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홍보와 관련해 설캠프 총학 측은 “마이크로디그리의 참여 장려를 위해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설명회△마이크로디그리 후기 공유카드 뉴스(Card News) 등의 홍보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자유전공학부 및 무전공 모집 학생을 위한 진로 설계와 연계한 홍보 전략의 기획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양캠프 복수 강의 추가 개설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계열학기 강의를 활용한 마이크로디그리 과목 중

설에 관해 학종지는 “해당 마이크로디그리를 개설한 학과의 판단에 따라 계열학기 개설 여부가 결정된다”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교과목의 계열학기 수강을 계획 중인 경우 해당 학과에 미리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캠퍼스별 계열 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설캠프 총학 측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Hybrid)형 공동 운영 방식이 해답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설캠프 총학 측은 “설캠프 총학 혁신위원회 교육권리분과위원회는 공간 부족과 수강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와 공동 운영 체계를 추진하고자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수요 기반 마이크로디그리 과목의 개설도 필요하다. 수요 기반 마이크로디그리 개편과 관련해 설캠프 총학 측은 “수업 개설 여부를 학과의 재량으로만 두기보단 학교 본부와 교무처가 본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구조적 계기를 만드는 면담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설캠프 총학 측은 “마이크로디그리의 행정적 정착을 위해 △수강 신청 체계△통합 안내 시스템(System)△행정 인프라(Infra)△홍보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종지는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위원회 신설△마이크로디그리 신청 시스템 및 캠퍼스 간 교차 수강 신청 기능 개발△이수학점 확인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디그리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학교와 학생 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

외부인 출입 자유로운 학생 식당,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생 식당은 타 대학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비교적 우수한 품질로 '학식 맛집'으로 불리며 외부인의 발길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점심시간마다 긴 대기 줄과 좌석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되며 학생들의 식사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학생증

확인 제도는 외부인 반발로 한 학기 만에 폐지된 바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균형 있는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외부인 학식 이용 현황△외부인 학식 이용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외부인 학식 섭취 현황

우리학교 학생 식당은 △꾸준히 개선되는 메뉴△ 신선한 식재료△저렴한 가격으로 인근 지역 내 '학식 맛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직장인△학생 등 외부인들의 방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엔 외부 단체 관광객까지 합세해 식당 앞에 길게 줄 서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학생 식당 운영 관계자 A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외부인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며 "특히 점심시간엔 학생보다 외부인 비중이 높아 보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 유입이 늘면서 식당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 직원 B씨 역시 "외부인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식당 이용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인 단체 방문 시 좌석이 부족해 학생들이 식사를 포기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복지를 위해 외부인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6년엔 외부인 방문의 증가로 학생 식당이 연간 1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총학생회가 학생증 확인 제도의 도입을 학교 측에 건의했다. 실제로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학교는 재학생만 교내 학생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으며 2월 29일부터 공식 시행을 앞두고 그 주부터 식권 발권기에 학번을 입력하게 하고 식권 판매대에서도 학생증 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는 더 이상 학번 입력이나 학생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외부인 유입 증가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학생 식당을 찾은 외부인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메뉴가 다양해 자주 방문하게 된다"고 말하는 반

면 재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줄이 너무 길어 식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식사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외부인 학식 섭취의 문제점

외부인의 무분별한 유입은 학생 식당 이용에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했다. 점심시간엔 식당 앞에 긴 줄이 형성되고 좌석 확보가 어려워 식사를 포기하거나 수업에 지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교수회관 식당의 경우 좌석 수가 제한적이어서 외부인 단체 방문 시 교수회관 식당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공간이 외부인의 유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식당 이용 권리가 침해되고 있던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C씨는 "점심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바로 식당에 가도 줄이 길어 식사를 포기한 적이 많다"며 "식사를 못 하고 커피만으로도 때우는 날도 자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 D씨는 "외부인들이 단체로 와서 줄을 길게 만들거나 한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어 정작 우리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학식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식당이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학생 복지의 핵심 시설이란 점에서 외부인 이용 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학생 식당이 학생 복지의 핵심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복지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논문과 보고서 및 지난 2018년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대학생 복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식당

의 식사권 보장이 학생의 기본 생활권을 지키는 데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 시간 증가△외부인 유입으로 인한 혼잡△좌석 부족 등은 학생들의 식사권을 침해할 수 있던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점심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엔 학생들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좌석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식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학생 우선 입장제'를 시행하거나 식권제를 도입해 재학생과 외부인에게는 가격 차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중앙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선 외부인 유입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커지자 외부인에게 6,000원~8,000원 등 학생보다 높은 가격의 일반 식권가를 부과하고 혼잡시간대에는 학생 우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외부인에게도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외부인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일정 부분 개방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인식이 확산돼 있다. 또한 식당 운영에 있어 외부인의 이용은 매출 확대와 운영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및 인근 직장인 등 다양한 이용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막는 것은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식사권 보호는 학생 복지의 핵심 중 하나로 이를 위한 실질적 장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현재 우리학교에서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 밥' 프로그램은 재학생만 식사할 수 있도록 설계

돼 있으며 식사 시 학교 공식 앱을 통해 QR코드를 인증해야만 식사가 가능하다. 이처럼 디지털 인증 시스템이 이미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방식을 평소 학식 결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학생증 제시나 학번 입력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한 QR 인증 시스템은 재학생 식사권을 보장하면서도 무분별한 외부인 유입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학식 예약제나 사전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미리 식사 시간을 예약하거나 주문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식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부인에게는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학생 복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제도 마련은 학생과 외부인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며 대학 식당의 공공적 역할과 학생 보호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대학△지역사회△학생이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부인 자유 출입 학생 식당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맛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학생 식사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학생 우선 복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역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가격 차등△예약제 도입△외부인 이용 제한 등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해 학생 복지 중심의 정책을 핵심으로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학교△학생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시대를 읽다. 미래를 열다

HUFS만의 혁신

HUFS의 글로벌 경쟁력에 첨단융합학문을 더해
학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https://ww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읽어서 세계속으로

특별했던 슬로베니아

나는 해외에서 단순 체류나 여행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 그 나라의 대학에 다니며 거주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단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지난 학기 우리 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슬로베니아 (Republika Slovenija)에 다녀왔다. 우선 슬로베니아로 가게 된 이유는 물가와 치안이었다. 슬로베니아는 학생 복지가 좋고 생활 물가가 비교적 싼 편이기에 학생 신분으로 거주하기 좋았다. 특히 학생 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지정 식당에서 5유로 미만으로 외식을

야 한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숙사 사전 신청을 놓쳤다. 이후 따로 플랫(Flat)을 구해야 했는데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플랫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내가 살았던 플랫은 총 4명이 이용했는데 그중 나만 학생이라 서로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친해지기도 어려워 숙소 생활이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메이트(Mate)들의 국적이 모두 다르단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이트들이 있어 좋을 때도 많았다.

준으로 했다. 따라서 생각보다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 좋은 환경이었으나 그렇다고 저절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었다. 다녀와서 생각해 보니 예상보다 낮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기에 가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력 향상이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나는 출국 전 짧게 학원에 다닌 것 외에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갔는데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한계가 느껴질 때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사실 외식보단 장을 봐 숙소에서 한식을 직접 해 먹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지만 요리를 위해 스과일스체소스빵과 같은 식료품을 구매할 때 값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슬로베니아는 편의점이 없어 마트가 활성화된 편이었기에 항상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번씩 마트를 들렀던 것 같다.



치안 또한 좋은 편이라 밤길이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고 교환학생 생활 도중 지갑을 세 번이나 잃어버렸음에도 모두 되찾았을 정도로 안전했다. 비자 취득의 경우도 쉽고 빨랐으며 대학과의 연락도 타 유럽 국가 대학들에 비해선 비교적 원활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제출과 함께 기숙사 신청을 해

슬로베니아에 살며 나에게 중요했던 점은 날씨였다. 내가 거주했던 류블라냐(Ljubljana)는 날씨가 정말 흐리고 비가 자주 오는 편이었는데 날씨의 영향을 잘 받는 나로서는 우울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날들이 많아 아쉬움이 남았다. 의외였던 점은 그곳에 거주하며 생각보다 슬로베니아어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었다. 주로 교류하는 젊은 층의 슬로베니아 학생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슬로베니아어와 영어를 함께 배우면서 자란 친구들이기에 영어를 모국어 수

다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결국 나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 여러 면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전공 친구들과 교류하며 언어의 장벽도 덜 느끼고 공감대도 있어 좋았다.

낮선 곳에서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시는 못해볼 경험을 했기에 전체적인 슬로베니아 생활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정다인 (중국 · 중언문21)



아일랜드

<이처럼 사소한 것들>

- 침묵을 견고 용기의 길로 나아간 한 사람의 겨울 -



크리스마스(Christmas)를 앞둔 아일랜드(Ireland)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거리의 장식 불빛처럼 따뜻하고 고요한 일상을 보낸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모른 척하는 진실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그곳에서 한 남잔 조용히 고개 든다. 클레어 키건(Claire Keegan)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Small Things Like These)'은 그런 조용한 고개 틈에서 출발한다. 화려한 감동이나 격렬한 대립은 없다. 대신 이 작품은 공감과 윤리적 감수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공정한

을 이야기한다.

주인공 필롱(Furlong)은 석탄 배달을 하며 다섯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는 크리스마스이브(Eve) 아침에 한 수녀원의 석탄 저장고에서 맨발의 소녀를 발견한다. 필롱은 얇은 잠옷 하나만 걸친 채 감금되어 있던 소녀를 못 본 체할지 혹은 도움을 손길을 내밀지 갈등한다. 필롱의 주변 사람들은 당시 만연한 사회적 억압을 말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른 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필롱은 소녀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이 과정에서 필롱은 큰소리를 치거나 세상을 향해 외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소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수녀원을 나간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 담긴 움직임이 이 소설의 중심이다. 필롱의 행동은 거창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결단이 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한 여성의 친절과 배려 덕분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자신의 기억은 필롱에게 책임감을 남겼다.

또한 소설의 아름다움은 필롱의 용기를 영웅적인 것으로 그리지 않는 데 있다. 그는 두렵고 망설이고 끝없이 흔들린다. 아내 수녀원을 건드리지 말라고 조언하고 마을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한다. 그럼에도 필롱은 그 무게 속에서도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길을 택한다. 필롱의 용기 있는 행동은 누군가를 위한 결단이 아닌 자신 안의 침묵과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내면의 선택이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 그 자리는 때로 아주 작고 사적인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필롱처럼 말 없는 연민과 자지만 용기 있는 실천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일 수 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아도 공정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 여정은 거대한 구조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눈앞의 작은 불의에 응답하는 감정에 시작된다. 세상을 구해온 것들은 그렇게 작고 따뜻한 것들이었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세상과 경제가 궁금할때

질문하는. 노.경.씨.를 찾으세요



질문하는 기자
취재 비하인드 대방출, 유쾌한 정치토크

노.경.씨.
CBS 대표 유튜브 채널 현장뉴스는 노.경.씨.에서!

경제적 본능
돈의 흐름을 꿰뚫는 짚짚한 인사이트

씨리얼
현실을 직관하는 젊은 시사교양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선을 넘은 계절학기 수강료... 등골 휘는 대학생들

방학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계절학기가 열린다. 최근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취업 경쟁력의 한 요소이기에 계절학기 수강생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학생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장학

금 미적용 및 수업료 산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계절학기 수강료 수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사를 통해 △계절학기 비용 현황 △계절학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계절학기 수강료 현황

계절학기란 정규 학기 이외의 방학 기간 동안에 개설되는 학기를 의미한다. △교양△전공△타과 선택 과목 등 학교별로 과목의 종류와 그 수의 차이가 있지만 전국 다수의 대학이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학기 수업은 보통 3~4주간 운영되고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계절학기 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조기 졸업△학사 보완△학점 이수 부족 해소 등 저마다 다양한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계절학기의 수강료 납부 방식은 정규 학기와 차이가 있다. 정규 학기에선 한 학기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반면 계절학기의 경우 수강하는 학점 수에 따라 수업료가 달라진다. 우선 서울 내 주요 사립대 8곳의 이번 해 여름 계절학기 기준 1학점당 수업료 평균은 약 94,200원 정도이다. 해당 대학의 1학점당 수업료를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97,000원 △고려대학교 107,900원 △서강대학교 80,000원 △성균관대학교 100,000원 △연세대학교 106,700원 △중앙대학교 90,000원 △한국외국어대학교 85,000원 △한양대학교 87,000원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계절학기 비용이 사립대에 비해 좀 더 저렴한 편이다. 이번 해 여름 계절학기 기준 국공립대 1학점당 수업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40,500원 △부산대학교 29,000원 △경북대학교 25,000원 △충북대학교 25,000원 △전북대학교 23,000원 △강원대학교 23,000원 △경상국립대학교 25,000원 △부경대학교 25,000원 △목포해양대학교 20,000원이다. 해당 국공립대 9곳의 1학점당 평균 수업료는 약 26,167원 정도다. 해당 수치를 토대로 1학점당 평균 금액을 비교하면 사립대는 국공립대의 약 3.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은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여름학기까지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한 학교는 △덕성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있다. 특히 수도권 모 대학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해 왔다. △2011년 1학점당 60,000원이던 수강료는 △2018년 75,000원 △2022년 90,000원으로 매년 15,000원씩 인상됐다. 지난해엔 수강료가 다시 한 차례 인상되며 1학점당 100,000원이 됐으며 올해 여름 계절학기 역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해당 대학의 학생이 이번 여름 계절학기에서 3학점 과목 1개를 수강할 경우 총 30만 원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절학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

계절학기의 높은 수강료엔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먼저 계절학기 수강료는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범위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논의 범위에 계절학기 수강료는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같은 등심위의 제도적 공백 속에서 학생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방식과 회계 등 세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단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별도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계절학기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기에 수강료의 인상 폭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어떤 산정 기준

장학금 모두 적용되지 않아 학생들은 별도의 장학금 적용 없이 높은 수업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공계열의 실험·실습 과목의 경우엔 기존 계절학기 수강료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의 올해 여름 계절학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이론 과목은 학점당 90,000원이지만 실험 및 실습 과목은 학점당 105,000원으로 해당 과목의 경우 15,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실험 재료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이미 높은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높은 수강료에 비해 교육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인 A씨는 "지난해 겨울방학에 계절학기로 2학점을 수강했는데 17만 원이 들었다"며 "학기 중에 수강 신청을 못 한 학우들은 부득이하게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비싼 돈을 주고 학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방학에도 나와서 수업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인력과 학교 운영 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비용이 높아지는 건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강료 자체가 지나치게 너무 비싼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우리학교 재학생 주영빈(영어·영문 24)씨는 "학기 중에 수강하지 못한 수업을 듣기 위해 계절학기를 고려했는데 비용이 부담돼 망설여졌다"며 "결국 계절학기를 신청했지만 등록금 외에도 식비나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계절학기 수강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도한 수강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절학기 전용 장학금 신설 △국가장학금 적용 범위 확대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연세대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 이하 인스타) 'yousei_student'에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 요구 관련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연세대 제5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유어스'(Yours)는 공식 인스타에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를 위한 관계 부처 면담 및 경과 상세 보고"를 공고했다. 총학은 이를 통해 계절학기 등록금이 학생 측 의견의 반영 없이 매우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 기획실 예산팀과의 면담 진행 등을 진행했음을 알린 바 있다. 계절학기가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수업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과 근거에 따라 수강료가 책정됐는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실무자를 제외하면 계절학기 수업료의 총수의 규모와 사용처 등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상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계절학기엔 장학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또한 문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이하 국장)은 정규 학기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계절학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 학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학기로 운영되고 있기에 국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교내 장학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성적우수 장학금 △소속분위 장학금 △면학 장학금 등 모두 정규 학기에만 한정되며 계절학기에선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세종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계절학기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며 특정 강좌에 한정돼 있다. 결국 계절학기 수강료는 국가장학금과 교내

이런 상황에선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계절학기 특성상 실험·실습의 교육 질이 정규 학기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통해 학기 중 부족했던 학업을 보완하고 보다 유연하게 학점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나치게 높은 수강료로 인해 수강 여부를 고민하기도 전에 비용 문제로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칫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학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무인점포의 양면성, 편리성과 위험성

최근 무인점포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운영이란 장점 덕분에 주목받고 있지만 도난 등 각종 범죄 또한 끊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이 무인점포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무인점포 현황 및 운영 방식△무인점포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무인점포 현황 및 운영 방식

무인점포란 직원 없이 운영되는 점포로 고객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는 시스템(System)을 갖춘 매장을 뜻한다. 이러한 형태의 점포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카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무인 가맹점 수는 약 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맹점의 수가 8% 늘어난 것에 비해 높은 증가 폭을 보인다. 무인점포의 확산 배경엔 △비대면 소비 선호 증가△인건비 절감△24시간 운영 가능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는데 무인 운영 방식은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운영 절차가 간소화돼 점주 입장에서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단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무인점포는 주로 △밀키트(Meal kit) 판매점△사진관△세탁소△스터디카페(Study cafe)△아이스크림 판매점 등과 같이 비교적 단가가 낮고 1회 이용이 간편한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이용층은 키오스크(Kiosk) 사용에 익숙한 청년 소비자들이다. 무인점포는 고도화된 기술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단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학교 내에 위치한 CU 편의점은 무인 운영 시간대에 신용카드 또는 QR코드를 통한 출입 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매장 내에 설치된 다수의 CCTV는 도난 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며 결제 과정에서 키오스크 기계를 도입하는 등 점차 자동화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무인점포의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무인점포의 확산은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될 순 없다. 첫 번째 문제로 도난 및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건비 절감

이란 장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절도 범죄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범행이 비교적 수월하단 점을 노린 절도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5월 22일 자 이데일리(Edaily) 보도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들이 약 2개월에 걸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벌여 피해액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인터뷰에서 피해를 본 업주 A씨는 “하루에 10만~20만 원어치 물건이 사라져도 눈에 띄지 않아 한 달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혀 범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출입 인증 및 구매 인증 시스템의 허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무인점포는 카드나 QR코드를 활용해 출입 인증 절차를 사용하고 있지만 타인의 신분증이나 카드를 이용해 출입하거나 구매하는 사례를 완전히 차단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무인 전자담배(이하 전담) 점포의 경우 성인 인증 시스템의 미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경희대학교 인근에 있는 한 무인 전담 점포의 경우 신분증만 기기에 인식시키면 별도의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양주에서 전담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무인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사는 청소년이 많다”며 “실제로 가게 운영 중에 전담 판매점에서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전담을 사려는 것을 제지한 적이 많다”고 전했다. 나아가 일부 점포에선 아예 성인 인증 절차 자체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26일에 실시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1월 서울 시내의 한 무인 주류 자판기에선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술을 구매할 수 있단 제보가 경찰에 제출돼 현장 조사 결과 점포 내엔 성인 인증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미성년자의 주류 및 담배 구매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워 공공 보건과 청소년 보호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고객 응대 및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다. 무인점포는 키오스크나 모바일(Mobile) 결제 등 비대면 기술에 기반해 운영되지만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겐 이러한 시스템이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많은 고령층이 일상에서 키오스크를 자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부 노년층의 경우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은 아예 가지 않는단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겐 무인점포 이용 자체가 불편함을 넘어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결제 실패△기기 오류△제품 불량 등의 상황 발생 시 소비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 또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만족이 반복될 경우 무인점포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 저하 및 구매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무인점포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무엇보다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장치와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 측면에선 인공지능(AI) 기반 행동 인식 시스템이나 안면 인식 출입 관리 등 지능형 보안 시스템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안면 인식 기술의 경우 출입뿐만 아니라 특정 물품 구매 시에도 인증 절차와 연계해 미성년자의 주류 및 담배 구매와 같은 불법 행위 차단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CCTV 추가 설치와 보안업체 직원의 출동과 같은 보안 솔루션(Solution) 작동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보안 시스템의 도입이 더욱 지속 가능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AI뿐만 아니라 제도적 방안 또한 존재해야 한다. 미성년자 구매 금지 물품을 판매하는 무인점포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

로 점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고객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디지털(Digital)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했던 디지털 배움터의 사례처럼 공공 차원에서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 불편을 기술로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인식 변화와 책임 있는 소비문화의 정착이다. 무인점포는 운영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비윤리적인 행위는 강력히 제재돼야 하고 소비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무인점포를 이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인점포의 편의성과 효율성 뒤엔 여전히 많은 제도적 및 기술적 공백이 존재한다. 그 공백은 때로 범죄를 불러오고 때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며 나아가 소비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무인점포가 단순히 편리성을 추구하는 확산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책임과 기준을 마련할 때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법적 문제 되나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대거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인인 투표소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단 이유로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선거인을 외부에서 대기시킴으로써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분증과 본인확인이 기표보다 일찍 진행돼 신분 확인이 끝난 선거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다. 같은 날 이

투표소에서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두 명은 대기가 길어지자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인증을 마친 후 기표를 위해 투표소 밖으로 줄 서 있는 것은 문제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 전문가들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장 밖을 벗어나면 비밀 투표나 투표 매수 계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회 국토부, 싱크홀 사고 재발 막는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요청 없이 지반을 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를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관련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데이터(Data) 및 시스템(System)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싱크홀(Sinkhole) 사고 예방을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장비를 2029년까지

30대로 늘릴 계획이다. 싱크홀 발생 원인이 된 굴착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안전 조사의 소요 인력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용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가맹점주들이 가격 정하는 ‘자율 가격제’, 영향은

지난달 27일 다이닝브랜드그룹(Dining Brands Group)의 치킨 브랜드 bhc가 오는 이번 달 초부터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 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현재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가격을 인하 및 인상하려는 가맹점주들에 한해선 최대 1천~2천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에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을 권장할 순 있지만 강제적으로 구속할 순 없다. 한편 자담치킨은 최근 배달 치킨 가격을 2천 원씩 올리는 이중 가격제를 치킨 업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치킨 전문가들은 업계 1위인 bhc가 자율 가격제를 결정하면 다른 프랜차이즈(Franchise)들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반적인 치킨 값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제 대만, 공무원 중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대만 당국이 △일반 공무원△교사△군인 등 약 74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의 신분증과 거주 중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1차로 고위직과 주요 부서 근무자 37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2차로 지방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넓혔다. 라이칭테(Lai Ching-te) 대만 총통의 지시에 따라 올해 3

월부터 대만 국가안전회의는 전수조사를 명령했으며 대만 현행법은 △공무원△교사△군인이 중국 국적이거나 거주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만 내부에선 이번 전수조사가 자국민을 억압하는 조치란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당의 왕샤오링(Weng Hsiao-ling) 의원은 “본토 단체광장 금지와 본토 학위 무효화에 이어 총성 서약까지 최근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미사일 충돌과 긴장 고조, 인도-파키스탄 관계의 다음 국면은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Kashmir)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을 계기로 인도(India)와 파키스탄(Pakistan)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이 국경 분쟁을 넘어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한 이후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몇 차례 충돌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뭄바이(Mumbai) 연쇄 테러△인도 국회의사당 테러(Terror)△풀와마(Pulwama) 테

러 등이 있었다. 이번 사태가 과거처럼 일회성 충돌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남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충돌의 배경과 파장에 대해 김찬완 우리학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김찬완 우리학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

1.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테러입니다. 무장 테러 조직들이 힌두교 신자들을 겨냥한 이 테러로 인해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테러로 판단해 파키스탄에 보복을 가했습니다. 인도는 인더스강 조약* 중단으로 시작해 약 9곳의 파키스탄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때 인도는 파키스탄 군사 시설 또는 민간 시설 대상이 아닌 테러 조직 캠프(Camp) 및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이 재보복을 가하며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2.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정확한 주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능한 시나리오(Scenario)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인도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의 지원에 의해 이뤄진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자신들이 한 테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항전선이란 이름을 가진 저항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이번 사건이 어떤 테러 조직에 의해 벌어진 것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측에선 저항전선이 테러를 일으켰던 증거 또는 테러에 파키스탄의 지원이 있었던 증거를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양국이 미사일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치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테러입니다. 이후 테러에 대한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되며 전면전까지 치달게 됐고 나중엔 공중전까지 이뤄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인 프랑스제 라팔(Rafale) 전투기 5대 중 3대를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또한 파키스탄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1. 이번 사건을 단발적인 충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이 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역

사적으로 볼 때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를 기반으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원래 한 국가였지만 인도에서 힌두 지역은 인도로 무슬림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단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외에도 카슈미르란 지역은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주권을 가진 독립 왕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카슈미르의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이었기에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슈미르 왕은 힌두교였고 파키스탄과의 병합을 거부해 파키스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슈미르 왕은 인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총리였던 네루(Nehru)는 카슈미르가 인도 연방에 병합되는 조건으로 지원을 제안했고 카슈미르 왕은 이를 수락해 영토 합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인도는 카슈미르를 인도 영토라고 주장하며 인도군을 카슈미르에 파견합니다. 그러나 당시 파키스탄이 이미 카슈미르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인도는 합병 조약을 근거로 유엔(United Nations, 이하 유엔)에 파키스탄의 철수를 요청했으나 유엔은 합병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 종교 대립과 영토 분쟁이 현재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4. 파키스탄은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응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인도에 강경하게 맞서는 배경엔 양국의 자존심 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오랫동안 종교와 영토 문제로 다투며 대립 관계 및 적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국민들은 인도가 영토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보호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경제 위기를 이유로 미사일을 수차례 맞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파키스탄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지난달 10일 미국의 개입으로 양국 휴전 협정을 맺으며 긴장이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휴전 협정은 기본적으로 군사 갈등을 중단한단 내용입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 증가시킨 병력을 철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전쟁 기조를 바꿔 앞으로 다른 테러가 발생할 시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양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이번 충돌 이후 인도는 파키스탄에게 강 상류에 대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더스강 상류의 주요 지류는 인도를 지나기에 인도가 지류를 바꿀 시 하류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농업의 약 70%가 인더스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강물을 산업용수 및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6. 과거에도 양국 간 유사한 충돌이 있었나요? 이번 사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유사하거나 다르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인도와 파키스탄은 네 차례의 전쟁을 했으며 테러는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 카슈미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인도의 보복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무기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볼 때 전반적인 무기의 파괴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전면전이 발생하더라도 국경 지역 내에서만 충돌했던 것과 달리 현재 전면전이 발생할 시 양국에 매우 큰 피해가 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인도가 파키스탄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위협 행위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보복했습니다.

7. 미국과 중국은 각각 인도 및 파키스탄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지정학적 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초기엔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전면전까지 치달는 상황이 되자 즉각 개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이며 많은 미국 회사들이 인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겪는 국경 분쟁과 양국이 경쟁 관계란 점에서 중국은 전쟁으로 인도의 국력이 약해지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선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인도는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최소 1년에 500억 달러 최대 7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경제적·군사적·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중전에서 중국산 J-10C 전투기가 인도가 소유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를 격추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8. 현재 인도에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이들 기업의 활동이나 한국-인도 간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대부분 남인도에 이뤄졌습니다. △기아자동차△삼성△현대자동차△LG 등의 공장이 남인도에 있습니다. 물론 북인도 델리(Delhi) 주변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전면전이 발생해 델리와 그 주변까지 공격을 받는 것은 전쟁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기엔 델리에서 충돌이 쉽게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도 파키스탄과의 경쟁으로 인해 양국이 우리나라의 무기를 많이 수입한단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가 수입한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인도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무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더스강 조약: 1960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도 최북단에서 발원해 파키스탄 중남부를 가로지르는 인더스강 6개 지류에 대해 파키스탄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완벽을 쫓는
성장한 나

이번 원고를 끝으로 외대학보 기자로서 내 이름 아래 글이 더 이상 발간되지 않는다. 이제 익숙해진 열 두 번째 마감은 기자로서의 마무리이기도 하다. 마지막이기에 뒷담하는 기자란 이름에 걸맞게 한껏 시원하게 뒷담을 하며 글을 단을 예정하기에 글의 첫 문장은 '나로부터 시작되겠다. 지금의 난 그러도 기대했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여전히 거리가 멀다. 기자 생활의 끝자락에 이르며 혼자서도 원고를 고치고 기획안은 단 번에 통과받아 마감 앞에서 조연한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믿었다. 온갖 시행착오도 언젠간 후배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조언할 수 있는 여유로운 선배가 되었을 줄 알았다. 결국엔 완벽한 글을 써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아직도 더딘 걸음으로 걷고 있던 것을 객관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완벽에 다가선 대신 애써 한 문장 한 문장 단어를 붙잡는 모습은 여전히 낯설다. 그런 날 바라보며 문득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되길 바랐던 것 일지 생각해봤다.

작년 학보 활동을 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었다. 그만큼 기획 주제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고 모두가 기피하던 기획 기사에서 나 역시 자연스레 눈을 돌리곤 했다. 그러던 중 문득 나름 학보 기자로서 학교의 정책과 문제를 짚어내고 알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역할을 맡은 이유이자 명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올해엔 애써 마음을 기울여 학교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일까. 올해는 여섯 번의 기사 발행 중 다섯 번을 기획 기사로 채웠다. 스포츠사범대학총학생회소해와 교류 제도스혜계 공간스혜연 구역 등 작년의 나왔던 주제와 외면했을 것이지만 정면으로 마주하며 글을 썼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기사들이 몇 번이나 신문의 한 가운데를 장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취재하면서 학교와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됐다.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과 제도들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고 그 속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점차 선명해졌다.

그동안 난 스키 계획을 단번에 통과시키는 기자 스템과 같은 것보다도 침착하게 웃는 기자 스템과 같은 것을 추구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학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 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면서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완벽함'은 단지 멋진 문장이나 잘 다듬어진 기획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수없이 기획안을 고치고 다시 써 내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심을 담은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진정으로 바란던 완벽함이었다. 이전 '완벽함'이란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던 생각에 조금은 답답해진 것 같다.

학보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나 자신을 끊임없이 되물어보는 긴 편지와도 같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목소리를 세상에 남기고 싶은가에 대해 매 마감과 기획마다 나는 그 질문 앞에 다시 선 채 고민했고 때론 해매기도 했다. 직접 기획한 김지영 승무원님의 인터뷰를 마친 후 나는 비로소 그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실마리를 얻은 듯했다. "승무원도 인생이라는 선 위의 하나의 점일 뿐"이라는 그녀의 말은 나의 기자 생활 역시 이 거대한 선 위에서 반짝였던 한 조각이라는 걸 일깨워줬다. 어쩌면 나는 그 작은 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나만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도 들곤 했다. 학보는 내게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방향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준 공간이었고 어떤 말과 시선이 울고 필요하지를 단정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단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줬다. 혼란스러운 기획과 빈 칸 투성이 원고 속에서 나는 삶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을 조금씩 찾아갔다. 완성된 답이 아닌 '쓰는 중인 문장'으로서의 내가 어떤 문득 방향이 두렵지 않게 됐다. 아직도 나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할지는 어렴풋이 알게 됐다. 삶 또한 한 편의 글처럼 다듬고 고치며 때론 지워진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가는 것임을 말이다.

최소윤 기자



[책 '동네 병원 인문학'을 읽고]
일상의 진료실에서 발견한 삶의 깊이

병원은 대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동네 병원 인문학'은 이 일상적인 장소가 단지 병을 고치는 곳을 넘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오롯이 마주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0년 넘게 동네 병원을 운영해온 내과 전문의 이연민 저자는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병과 인간 그리고 의학과 인문학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넘나든다. 그는 병을 단순히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닌 인간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삶의 본질을 성찰한다.

'동네 병원 인문학'은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평범한 병과 이를 앓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엔 감기나 위염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말기 질환△암△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지만 저자는 질병 자체보다 그것이 환자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흔적을 남기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말속에 숨겨진 △두려움△불안△삶에 대한 미련을 함께 꺼내 보여준다. 책은 결국 병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닌 삶의 태도 전환을 건드리는 존재임을 조용히 일깨운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 장에 실린 '일상에서 죽음 명상하기'였다. 저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명료하게 바

라보게 하는 일이다"며 죽음을 외면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 것을 권한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본 의사로서 그는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닌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임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죽음 명상'은 다소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저자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태도라고 강조한다. 나 역시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던 생각에 닿게 됐다.

병이란 단어를 마주하며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고통△두려움△치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병은 단순히 몸의 이상이 아닌 삶의 방향과 태도까지 되문게 하는 경험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책을 덮을 때쯤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던 사실 자체에 경외심이 들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조차 새롭게 다가왔고 그 모든 장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 조용한 진료실에서 시작된 작지만 깊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잔한 파문을 남길 것 같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영화 '린다(リンダ) 린다 린다'를 보고]
밴드 하지 않을래?

문화제를 며칠 앞둔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 경음악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기타 연주자가 손목 부상을 당하고 보컬(Vocal)과 함께 밴드(Band)를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남은 드럼(Drum)△베이스(Bass)△키보드(Keyboard)의 세 명은 공연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원래 키보드 담당이었던 케이(恵)는 기타 연주로 도전하고 밴드는 새로운 보컬을 구하기 위해 학교 안을 수소문하고 다닌다. 그러던 중 복도를 지나가던 한국인 유학생 '송'을 붙잡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밴드 하지 않을래?"라고 제안한다. 일본어에 아직 서툰 송은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일본어 "네(はい)"로 대답해 버린다. 문화제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뿐이다. 네 명의 여학생들은 전설적인 80년대 일본 밴드 '블루하츠(ブルーハーツ)'의 노래로 무대에 서기로 한다. 그리고 '블루하츠'를 한국어로 직역한 '파란 마음'이란 이름 아래 밴드를 결성한다. 서툰고 어색했던 그들은 음악을 통해 천천히 연결돼 간다. 문화제 당일 '파란마음'은 낯모름을 자느라 공연에 지각하는 소동도 겪지만 무사히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린다 린다 린다'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청춘에 대한 애뜻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청춘 영화의 전형적 요소인 사랑이나 극적인 갈등을 다루기보다 진솔한 감정을 담은 담백함을 추구하며 우정과 음악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무대 뒤 긴장감△서로 다른 사람들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과정△청소년기 누구나 겪는 불안과 희망이 조용히 스며드는 영화다.

배우나 배우가 연기하는 유학생 송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송은 문화제에서 한일문화교류 코너를 마련하지만 관심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설정은 다소 외롭게 놓인 송이란 등장인물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 존재감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영화는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음악과 우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던 메시지를 전한다. 일본어가 서툰 송이 합주를 통해 점차 곡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작은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성장 이야기로도 다가온다.

밴드 스매싱 펌킨스(Smashing Pumpkins)의 기타리스트(Guitarist)였던 제임스 요시노부 이하(James Yoshinobu Iha)의 주제가와 블루하츠의 곡들이 어우러진 사운드와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끌어낸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들의 연주는 계속된다.

윤고는 기자 10geun@hufs.ac.kr

1104호 학보를 읽고
우리학교의 신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신없는 요즘이다. 길에서는 유세 차량이 떠돌아다니고 미디어(Media)에선 후보들의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어느 때와 같이 교문을 지나 등교하다 문득 길에 놓인 신문 거치대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와중에도 외대학보는 묵묵히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 이번 학기를 되돌아보고 학내 사안을 생각해 보고자 놓인 신문 하나를 집어 들었다.

4면에선 유학생들이 우리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살펴봤다. 외국어대학교란 명색이 무색하게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학교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다. 생활 기반이 부족한 유학생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금융이나 통신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마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발을 디뎠던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이 이런 미비한 제도로 인해 악몽으로 남을까 심히 염려된다. 앞으로 더 많은 유학생이 우리학교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5면에선 반대로 우리학교의 해외 교류 제도를 다뤘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해외 파견 과정과 현지 생활에서 난항을 겪는 일이 많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어도 생활비 부담이나 학점 인정 등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선 이러한 각종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일 것이다.

7면에선 청년 금융 이해력에 대해 알아봤다. 20대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은 전 세대 평균보다 낮고 그마저도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교양과목 '실용금융'에서 많은 금융 정보를 얻었던 기억이 났다. 수강하면서 몰랐던 금융 정보들이 많아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비슷한 교양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9면에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Data)나 생성하는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로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화풍으로 변환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 또 작가들은 문화예술 작품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법적·윤리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번 1104호에선 수요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는 학교 기념품 문제와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묵숨까지 앉아 가는 싱크홀 등에 대해 다뤘다. 그 중에서도 두 기획 기사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학생들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학생들의 현실을 살펴보는 그대로 보도했다. 특히 우리에겐 해당사항이 없어 간과하기 쉬운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인문사로서 정확히 지적한 점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글로벌한 사안들을 다루는 신문이야말로 우리학교의 학내인문으로 손색없다. 2학기에도 그 다음 해에도 외대학보가 학교의 글로벌 역량에 기여하길 바라며 이번 학기 마지막 신문을 덮는다.

백승준(영어·영문 23)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104호 학보를 읽고
변화의 물결

푸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캠퍼스는 축제를 비롯 한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의 여유로 채워지고 있다. 외대학보 또한 치열한 나날들을 보내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104호에선 △기념품 문제△외국인 유학생 문제△학내 게시판 관리 문제△스혜의 대학 교류 프로그램 운영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3면 준기획에선 우리학교 기념품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 중 대부분이 학교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 야구점퍼(이하 학점)를 구매한다. 이는 학점을 비롯한 우리학교 기념품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생들은 다양성 부족과 만족스럽지 않은 디자인 등의 이유로 공식 기념품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추후 기념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되길 바란다.

이어진 후속보에선 개선되지 않은 학내 게시판 관리 문제를 다뤘다. 현재 학내 게시판 위 치나치게 많은 게시물로 인해 학생들은 가시성 저하와 미관 손상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명확하지 않은 게시물 관리 책임 부서 및 무단으로 부착된 게시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야기됐다. 이번 기사를 통해 게시판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4면에선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유학생 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에 따른 지원 제도가 충분치 못하다. 유학생들은 △생활 정착 △어려움△언어 능력 부족△학내 외국인유학생 종합지원센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앞으로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겪을 문제들은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다른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학내 구성원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5면에선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 제공 부족△학점 인정 제한△7+1 파견 프로그램의 비유적 부담 및 인원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큼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제도 검토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강호를 읽으며 독자위원 기고 글을 작성하고 있던 것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종강호 글을 쓰고 있다. 한 학기 동안 외대학보 기자들은 학내외의 사안들을 조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독자들이 좋은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자들의 노력과 수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학내 여러 문제들을 비추며 의미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변화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장휘영(통번역·스페인어 23)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국·부장 고정칼럼

추억으로 남은 외대학보의 시간들

1년 6개월이란 길고도 짧은 시간의 끝자락에서 '빈의자'를 남긴다. 세 번째 만난 종강호를 통해 나 또한 학교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며 조금은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느낀다. 이번 1105호에선 외대학보가 다채로운 이슈들을 다루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3면에선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개설된 전공기초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교과목이면서 전공필수인 과목들이 생기며 기존 재학생들은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무전공 및 계열 모집 입학생들을 위한 기초수업인 동시에 기존 재학생들도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기에 모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율되길 바란다.

4면 기획면에선 마이크로디그리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다. 우리학교는 전문 지식과 융합 학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과정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5면에선 외부인 학식 섭취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리학교 식당은 저렴한 가격과 준수한 식사 품질 덕분에 '학식 맛집'으로 불리며 외부인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작 학생들이 식사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아 학생들의 식사권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지켜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7면에선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해 다뤘다. 졸업 요건 충족과 학점 관리 같은 이유로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선택하지만 높은 수강료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계절학기에는 장학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 수강료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다시금 느낀다.

9면에선 무인점포의 양면성을 들여다봤다.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난과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본 기사에서는 무인점포의 운영 방식과 현황을 짚고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추억은 결국 시간과 마음을 다해 쏟아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외대학보에서 같이 밤새며 야식을 먹던 시간과 금요일마다 기획 주제를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대던 순간들이 내겐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 항상 함께했던 △108기△109기△110기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외대학보의 여정이 더 빛나길 바란다

강예원 부장 08yewon@hufs.ac.kr



인공지능과 인간

인공지능의 발달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일자리를 가져갈지도 모른다. 공포심을 누군가에게는 자동화된 사회에 대한 희망감을 심어준다. 이렇듯 각자가 지닌 감정의 색깔은 다르지만 인공지능이란 변수의 개입으로 인류의 미래가 크게 변화했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미래의 인류가 인공지능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단순 노동으로 치부되던 많은 철자들이 간소화될 것임은 틀림없다. 항상 경제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진화해온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여기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우린 어떤 인류로 진화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오늘날의 눈부신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된 암기력과 연산능력은 더 이상 인류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연산 속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명령어 몇 개로 상황에 맞는 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 명의 똑똑한 인간이 모든 법조문을 암기하기 위해선 수십 년이 걸리지만 인공지능은 암기라는 개념조차 무색하게 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법조문을 알려준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인공지능과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것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은 대체 무엇일까. 우선은 사유(思惟)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물을 보고 다른 개념을 떠올리는 능력이야말로 감히 인공지능이 앗아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권능이기 때문이다. 우린 나비를 보고 꽃을 떠올릴 수 있으며 따뜻함을 피부로 느낄 때 봄을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인공지능도 은유적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고 결과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단지 수많은 데이터의 집합으로 그럴싸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눈속임을 할 뿐인 것이다. 인공지능이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인간 역시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유했을 뿐 태생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부단한 노력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자극에 노출되지 마라. 자신의 뇌가 생각할 수 있는 원천을 끊임없이 제공하라. 책도 좋고 길가에 핀 꽃도 좋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사유하는 인간은 분명 인공지능이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글이고 더 나아가야 이미지이다. 그마저도 인공지능이란 주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쓴 내용을 모아 자연스럽게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은 분명 '사랑'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연인으로서 주고받는 사랑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다.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험해본 자가 쓴 글과 그렇지 못한 자가 쓴 글은 분명 그 맥락을 달리한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인류라는 하나의 종으로서 인공지능과 충분히 차별화된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그린 미래에는 분명 인공지능이 포함되어있다. 증기기관이 그것이 지닌 편리함을 앞세워 인류를 산업혁명으로 이끌었듯이 인공지능만이 지닌 장점은 분명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미래에서도 인류가 남아있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도 그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안될 것이다.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기자들의 한마디

학보사를 마치며...



정소희: 잔류인들 수고하세요 전 로그아웃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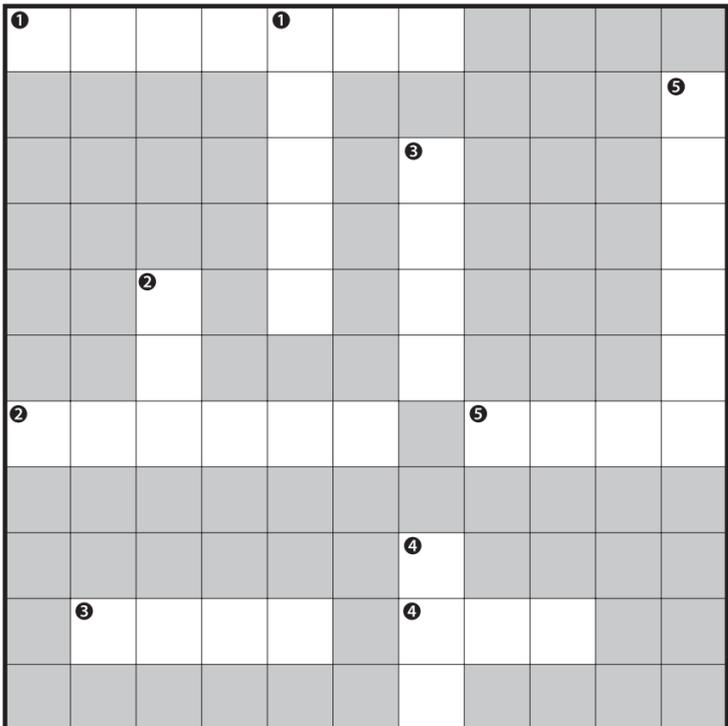
박진하: 학보 기자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소윤: 문장을 다듬으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준 외대학보에 감사합니다.

강예원: 외대학보는 계속된다. 파이팅!

김은희: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대학보 늘 응원하겠습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 는 학위 과정과는 별도로 △미네르바 교양 대학 △부서 및 학제△전공·학과·학부간 지정된 최소 학점을 이수하는 모듈(Module)형 교육 과정이다. (4면 참조)
-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 (7면 참조)
- 직원 없이 운영되는 점포로 고객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는 시스템(System)을 갖춘 매장 (8면 참조)
- 도서관 측은 열람실 ○○○ 해소 및 휴게공간 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하던 평가를 하고 있다.(3면 참조)
- 이번 대동제는 '○○○'란 테마에 걸맞게 학생들이 일상과 학업에서 벗어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개최했다. (2면 참조)

세로

- 사업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SW(Software)/AI(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2면 참조)
- '계절학기엔 ○○○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문제다. (7면 참조)
- 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주권을 가진 독립 왕국으로 남아있는 땅. (9면 참조)
- 외부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5면 참조)
- 는 우리학교의 대동제로 실경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주관 아래 다양한 무대 및 체험형 콘텐츠(Contents)로 구성했다. (2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코트 밖 3점슛

원석연 기사를 만나다

원석연 (글로벌스포츠 · 10)기자는 농구 전문 콘텐츠(Contents)를 다루는 기자이자 크리에이터(Creator)다. '루키 더 바스켓(Rookie The Basket)'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했던 그는 현재 △유튜브(Youtube) 채널 '농구대학' △KBS N 스포츠 '아이러브 바스켓볼(I Love Basketball)' △스포츠조선 '이류농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농구의 매력을 전달하고 있다. 취재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두루 경험하며 농구 콘텐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우리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적부터 박찬호와 박지성을 보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새벽에 열린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보고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심한 듯 “졸업하면 박지성이 너 밥 먹여 줄 것 같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반씩 들었던 생각이 “맞네 박지성이 밥 먹여주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관련 학과를 찾아봤고 가장 적합한 학과가 바로 우리 과였어요. 그때부터 저의 목표는 쪽 우리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였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고등학생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스포츠 경기를 보느라 밤을 새우고 수업 시간엔 졸았어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대학생이 처음으로 토익(TOEIC)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전날 박지성이 리버풀(Liverpool)과 라이벌전에서 극적인 골을 넣는 비라에 또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제 생애 첫 토익 점수는 250점이었어요.

Q2-1.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스포츠 이벤트(Event)란 학과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시험도 과제도 없이 조를 나누고 그 조원들끼리 한 학기 동안 스포츠 이벤트 하나를 개최하는 특별한 수업이에요. 스텝 회 장소스대회 인원△예산까지 전부 제로 시드(Zero Seed)에서 시작하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죠. 처음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지?’ 하고 막막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스텝대회 e스포츠 대회 △외국인 축구 대회△직장인 농구 대회 등 정말 다양한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렸고 그 과정을 통해 ‘JUST DO IT’을 배웠죠.

Q3. 농구 전문 기자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엔 야구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야구를 가장 좋아했고 그다음은 축구였거든요. 농구는 해본 적도 없고 아는 농구 선수라곤 허재와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밖에 모르던 문외한이었습니니다. 그러던 중 농구 전문지에 있던 지인에게서 제안을 받았어요. ‘농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자가 되면 언젠가 야구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화 ‘슬램덩크(Slam Dunk)’ 보면서 농구를 공부했으니 실수도 혼나는 일도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농구에 빠져 들게 됐고 어느 순간 야구나 축구 생각은 전혀 생각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평생 농구장에 있다가 은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농구는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Q4. 기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기자를 하면서 농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기자님께서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한국 농구선수들의 백보드 자유투’ 영상을 보고 이를 뉴욕 타임스의 기사로 다루고 싶단 취재 요청이었습니니다. 기자인 제가 또 다른 기자에게 취재 요청을 받은 적이 무척 특별했고 제가 만든 콘텐츠가 뉴욕 타임스를 통해 해외로 다시 소개된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

요. 처음엔 스팸 메일(Spam Mail)인 줄 알고 읽지도 않고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Q5. 농구전문기자로서 겪는 고충이 궁금합니다.

스포츠 기자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직장인들이 퇴근할 시간에 저희는 출근하고 직장인들이 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저희는 무조건 출근을 하거든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리듬(Rhythm)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니다. 또 에너지 소모도 상당해요. 수만 명이 환호하는 경기장에서 취재하다 보면 저도 마치 선수처럼 긴장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노트 북을 덮고 퇴근할 땐 온몸에 진이 빠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 긴장감과 몰입감이 또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지금은 그마저도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Q5-1. 반대로 농구전문기자란 직업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매일 새로운 경기가 열리고 새로운 선수들을 만나 예측 불가능한 승부를 가장 가까이서 취재할 수 있으니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지개를 목에 걸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설렘이 찾아옵니다.

Q6.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인터뷰야말로 기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준 만큼 누구나 던질 수 있는 뻔한 질문은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스포츠 기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스포츠 팬(Fan)이기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내가 팬이라면 지금 이 선수에게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 혹은 ‘이 선수는 지금 인터뷰를 통해 어떤 얘기를 가장 꺼내고 싶어 할까?’를 고민하면서 질문지를 준비합니다.

Q7. 최근 한국 농구의 가장 큰 변화나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근 한국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나 축구 등 전반적인 스포츠 종목들이 팬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어요. 경기력과 별개로 관중 수는 매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열기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으로 바꾸는 것이라 그리고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기 위해선 결국 리그(League)와 선수들이 경기력이나 국제 대회에서의 경쟁력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8. 기자 활동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바라본 한국 농구의 미디어 환경은 어떤가요?

지금 시기는 미디어의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서 이제는 유튜브나 SNS 같은 뉴미디어(New Media)로 중심축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창작자가 리드를 하고 팬들이 따라오는 구조였다면 이젠 팬들이 먼저 리드하고 창작자가 그 흐름을 읽고 따라가야 하는 시대라고 느낍니다.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수요를 얼마나 잘 읽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미디어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함께 호흡

하는 동반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Q8-1. 한국 농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기자석의 자리도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00자리의 기자석이 있다면 그중 50자리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앞줄에 있는 10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자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스포츠에는 결국 AI가 캐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휴머니즘(Humanism)이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해서 전달하는 미디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Q9.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가 궁금합니다.

△배구△야구△축구에 비하면 농구는 지금 분명 비인기 종목이에요. 과거 농구대잔치 시절의 황금기 이후로 오랜 기간 고전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만큼 미디

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탄핵리며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저 역시 미디어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국 농구가 다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날을 만들고 싶어요. 제 직업의식이자 사명감입니다.

Q10. 스포츠 기사를 지망하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스포츠 기사를 꿈꾸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실제로 저보다 농구를 훨씬 잘 알고 더 전문가 같은 학생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내가 그만큼 알아!’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사람들에겐 기사로 뽐내는 것보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결국 핵심은 ‘글쓰기’ 능력이고요. 그래서 스포츠 기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분야를 ‘얼마나 잘 아느냐’보다 그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